

“목욕하고난 어르신이

‘개운하다’ 말할 땐

내마음의 때 씻은 듯”

땀나누는 ‘여유회’도 참가

목욕봉사 이만희 보살

○...“아휴! 시원해. 그런데 말어, 추워, 춥단 말이여.” 경기도 포천 ‘산마을 목련의 집’ 목욕탕. 앙상하게 온몸이 땀뻘바르 김기선 할머니(83)가 머리광을 피운다. 그러다가도 “어머니 시원하죠?” 하며 양영화 원장(54)과 이만희 보살(38)이 말장구를 쳐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연신 웃어댄다. 비누칠하는 양 원장, 물 뿌리는 이 보살. 둘의 호흡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 한눈에 봐도 ‘목욕봉사 명콤비’다. 이리다보니 이곳에 살고 있는 치매·중풍을 앓고 있는 12명의 노인들은 이들 콤비에게 목욕시중을 받을 때마다, 권스레 까탈을 한번쯤 부러보는 진풍경이 연출되곤 한다.

이만희 보살은 ‘산마을 목련의 집’에서 자원봉사하기 1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서있지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다. 병명조차 알 수 없다며 병원에서는 고개만 설레설레 내들었다. 절망 끝에 우연히 찾게 된 목련의 집. 마침 치매·중풍 노인을 목욕시키던 양 원장이 내민 패타월을 무심코 집어걸게 되면서 이 보살은 목욕봉사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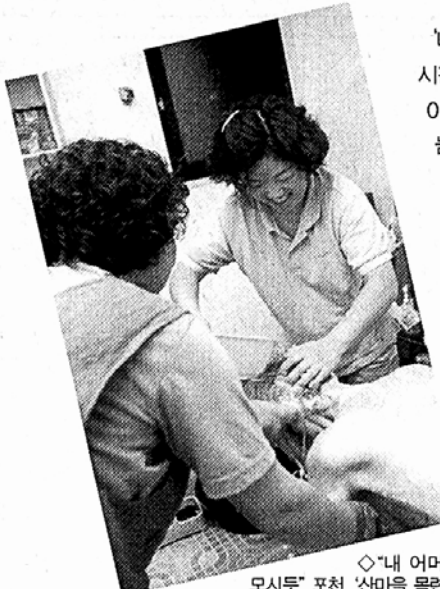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지요. 다만 아프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리서부터 골골대기만 했던 제 모습이 마냥 부끄럽기만 했어요. 아마도 저에게는 마음의 병이 깊었나봐요. 매주 토요일 어르신들이 목욕하고 나서 개운하다고 할 때마다 쾅쾅 찡찡 내 마음의 때가 씻어지는 것처럼 개운하고 보람도 컸답니다.”

이 보살은 몸이 한결 나아지면서 목욕봉사뿐 아니라 포천군내 미인가 복지시설 14곳을 찾아다니며 빵을 나눠주는 ‘여유회’ 활동도 시작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 삶을 찾게 됐다’는 이 보살. 목련꽃만큼이나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다.

발마사지 봉사 김용철 거사

○...10일 오전 10시,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지하 강당. ‘순서표’를 집어든 장애인들이 길게 늘어선 의자에 앉아 있다. 지난해 4월에 예약하고도 지금까지야 순서가 됐다. 배재인 씨(57·서울 중계1동). 통명 맞게 입 짧은 소리를 뱉으면서도 목이 빠지게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는 까닭은 다름 아닌 ‘발마사지’

# 나누는 삶...기쁨과 보람의 보살행



◇‘내 어머니 모시듯’ 포천 ‘산마을 목련의 집’에서 이만희 보살이 치매노인의 머리를 감겨 주고 있다.

‘나누는 삶’ 그 자체가 아름답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과 경험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불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의외로 많다. 이들은 한결같이 나눔을 통해 오히려 많은 것을 얻는다고 입을 모은다. 열반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 수행법인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이 첫번째 덕목으로 놓인 것도 스스로의 발심에 의한 보시,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행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남이 알아주건 말건 묵묵히 제 위치에서 제 할 일을 하면서 동시에 힘껏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작은 베풀’이 이 사회를 훈훈하게 한다. 나누는 삶을 살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함박웃음을 들여다 본다.



◇지체장애인이면서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중풍환자들에게 발마사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용철 거사.

본인도 다리 불구상태

장애인을 발마사지 수발

인기 ‘짱’...1년 예약 끝나다

건강관리지도에 맡겼도

봉사를 받기 위해서다. 1년 예약이 벌써 끝난 상태. 좀처럼 예약 건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복지관 관계자가 귀띔한다.

두 번째 발마사지를 받는다는 김송자 씨(66·서울 상계동). 친해질 요량으로 “음 저번엔 너무 아팠어요! 살살 좀 해주시래요?”란 애교 섞인 말이 건네지기 무섭게 ‘발톱부터 깎아야겠어요’라는 핀잔만 되돌아온다. 그래도 좋다고 아우성들이다.

김용철 거사(47). 조계종북부지대 자원봉사모임 ‘정진팀’의 팀장이기도 한 그는 이곳에서 ‘인기짱’으로 통한다. 발마사지는 물론이고, 자상한 건강관리 방법이며,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까지 일일이 물으며 말벗도 되어주기 때문이다.

사실 김 거사 역시 지체 장애 3급이다. 시켓말로 ‘절름발이 장애인’이다. 고2때 갑자기 ‘고관절’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 대수술만 4번을 받은데다가 15년 전에는 공장에서 급속절삭 일을 하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앞마디가 잘려 나갔다.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



◇‘찾아가는 자원봉사단체’ 민들레도시락 봉사단, ‘연화심 방문팀’ 회원들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았는데 친손 녀은 어머니 김말약 씨가 급기야 99년 9월에 중풍으로 쓰러졌다.

“하루에 열 번 넘게 화장실을 가야 하니 어머니께서 밥집을 편히 못 주무셨어요. 마비된 어머니 다리를 안마해주려고 배웠던 발마사지가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게 된 거죠. 나도 지체 장애인이지만, 남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환희심’이 생기네요.”

부천 석왕사에서 수행활동을 하고 있는 김 거사. 약사여래보살의 손길처럼 힘 들 없이 발마사지를 계속한다.

한손 도시락, 다른손 주소

성북·노원구 일대

매일 100여 집에 밥 배달

IMF이후 4년간 계속

‘민들레 도시락 봉사단’

○...한 손에는 도시락, 다른 손엔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들고 오늘도 노원구 사천왕사(주지 성덕)를 나

선다. 오전 11시에 출동할 곳은 서울 시영목련아파트 308동 805호. 하반신 마비 장애인 김철중 씨(48)가 홀로 3년째 살고 있는 집이다.

“안녕하세요. 아침은 드셨나요?”란 인사말부터 앞장 세우고, ‘민들레 도시락 봉사단’ 연화심 방문팀(팀장 김혜영·46)이 집안으로 들어선다. 들어가자마자 막내 최미영 보살(43)은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확인하고, 설거지를 시작한다. 최혜연 보살(46)이 화장실 휴지와 흐트러진 옷가지 정리를 끝마칠 무렵이면, 어느새 가져온 도시락이 밥상 위에 놓여진다.

8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

매주 첫 토요일 ‘봉사의 날’

노인 배식·설거지등 도와

장기기증 캠페인도

움직이지 못하는 김 씨가 도시락을 받은 지는 1년이 훌쩍 넘었다. 왼쪽 다리 소아마비에 2년 전부터 당뇨합병증으로 완전히 하체 마비가 된 김 씨는 “보살님의 도시락을 받아 먹을 때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일어서겠다는 의욕을 다지게 된다”고 말한다.

‘찾아가는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민들레 도시락 봉사단’. 120여 명의 회원들이 지난 97년 IMF이후 줄곧 5년째 노원구, 성북구 일대 결식아동, 장애인, 독거 노인 100여집에 매일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그동안 잃어버린 도시락통만 몇 천개가 넘는다는 이들의 활발한 활동력을 짐작할 수 있다.

“소소한 것까지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 인연법이 아니겠느냐”고 되묻는 연화심 방문팀 회원들. 매일매일 부처님을 찾아 뵈듯, 도시락 배달봉사활동에 나선다고 말한다.

소쩍새마을 후원 김선두 거사

○...장애인들의 보금자리, 강원도 원주 ‘소쩍새마을(원장 현각)’. 이곳

외동아들 앞세운후 시작

98년 이후 4년간 꾸준히

겨울철 난방비·쌀 후원

‘소쩍새마을 그림자 불자’

에는 지난 98년부터 한해도 빠짐없이 겨울철 난방비와 쌀을 후원하는 불자가 있다. 주인공은 김선두 거사. 김 거사는 선천적으로 자폐증을 앓던 25살 외동아들을 4년 전에 앞세워 보냈다. 평소 장애인에 관심이 많던 김 거사는 갑자기 여인 아들 생김새에 시름하다 장애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소쩍새마을에 후원품을 보내기 시작했다. 98년에 80kg 쌀 50가마에 이어 99년엔 20kg 쌀 160포대, 보리 20포대 등을 봉까지 후원물품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아들 눈 생김새에 후원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힘겹게 사는 소쩍새 마을에 오 히려 큰 힘을 얻게 됐기 때문이죠. 몸도 불편한 데다가 춥고 배고프니까지 한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김 거사는 소쩍새마을에서 ‘그림자 불자’로 통한다. 바지런히 쌀과 후원물품을 싣고와 조용히 내려놓고 말없이 간다. 무주상보시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불자다.

대학생동아리 ‘라이프 셰어’

○...날로 각박해져가는 세태 속에서도 장기기증운동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들은 바로 지난해 3월 창립한 ‘생명나눔(life share) 연합동아리(회장 김민호, 동국대 경찰행정 3년) 회원 50여명, 동국대를 비롯해 한양대, 성균관대, 외국어대, 항공대, 서울산업대, 서경대, 서울여자간호대 등 8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하고, 서울 안국동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노인들에게 배식보조, 설거지 등의 ‘작은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회원들 학교에 축제가 있을 때 마다 장기기증 캠페인도 벌인다. 지금까지 받은 장기기증 신청 인원이 400여명이 넘는다. 게다가 인터넷 ‘다움(daum)’에 ‘Life Share’ 카페를 개설해 놓고, 그동안 실천했던 봉사활동, 현황, 장기기증 신청 사연 등 체험담을 화제 삼아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이기주의로 치닫하는 요즘 세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소외받는 이웃들을 챙기고 있는 이들이 뜰적이다.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효사 육임강의록

## 첼츱 육임수강생모집

### 출시

### 3개월 12주 완성

육임 좋다는 것은 다 아는데, 공부할만한 교재가 없었습니다. 육임 책을 여러권 쓰고 전국을 다니며 강의를 해 오는 동안 쉽고 빠른 입문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이번에 만들어 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 효사 -

- ◆ 값 300,000원
- ◆ 입 금: 한빛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북문
- ◆ 전 화: 02-993-8680
- ◆ 부산지사: 051)851-2349

- ◆ 강의시작: 6월7일 오후 7시부터
- ◆ 강의시간: 3시간
- ◆ 교 재: 효사 육임 강의록
- ◆ 수 강 비: 1,500,000원(교재 효사육임강의록 포함)
- ◆ 마 감: 6월 5일까지 선착순
- ◆ 정 원: 30분
- ◆ 입 금: 한빛 813-041583-13-101 ◆ 전 화: 02-996-3335

한국육임학회 육임학당 효사속

### 육임비디오 수강 1,200,000원(교재 효사육임강의록 포함)

- 육임신수비결 250,000원 육임세밀정단법 100,000원
- 육임형이상법 150,000원 육임운명판단법 130,000원

- 육임레정비법혁신판 (전문가용) 좌정용: 1,300,000원
- 휴대용: 1,500,000원
- 증보판: 350,000원